지속적인 수출신장세 유지, 종이컵 업계 선도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에 주력

김 성 환
가보테크(주) 대표이사

자동판매기의 보급과 패스트 푸드점의 성장에 따라 종이컵은 음료용 및 식품 용기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연간 종이컵 생산량이 약 150억개로 추정되고 있는 등 음료용과 식품용에 고루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기능 종이컵에 대한 개발이 요구되면서 열에 강한 제품, 기름에 강한 제품, 장기 보존이 가능한 종이컵 등이 시판되고 있다.

또한 냉동 보존용 종이컵, 전자레인지 조리용도까지 개발되면서 종이컵의 형상도 환형 뿐만 아니라 각형, 타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시장에 도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발전하고 있는 일본 종이컵 업계,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는 일본 바이어로들에게 고품질 제품으로 인정받는 한편, 국내를 비롯한 대만, 리비아 등지에 지속적으로 수출하며 주목받고

▲ 가보테크(주)사무실에 전시된 생산제품

▲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가보테크(주)

있는 종이컵 제조 수출업체인 가보테크(주)(대표이사 김성환)를 찾았다.

1997년 경기도 광주에 설립된 가보테크(주)는 오랜기술과 최첨단 기계설비로 세계 주무대로 발전하고 있는 업체이다.

1992년 12월 종이컵 성형기를 6대 설치하고 가동하면서 발전한 가보테크(주)는 설립 이듬해인 98년 무역의 날 3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면서 수출 주력 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2000년도 제1공장에 폴리에틸렌 라미네이터기를 설치한 가보테크는 2001년 자회사인 금송(주)을 설립, 경기도 광주와 전라북도 남원에 각각 공장을 보유하게 됐다.

2002년 무역의 날 5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 지속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가보테크(주)는 2003년 4월 경기도 광주지역에 있었던 제1공장을 전라북도 남원으로 이전, 지난 해 9월 완공하게 된다.

가보테크는 남원 공장에 종이컵 성형기와 그라비아 인쇄기, 플렉소 인쇄기, 종이컵 내면 검사용 카메라를 설치, 가동하면서 이를 통해 종이컵 원지취급, P.E. 코딩, 그리비아 인쇄, 펀칭, 종이컵 성형, 카메라 내면검사, 품질검사의 최신설비를 통해 일괄생산공정 시설(ONELINE-ONESYSTEM)을 보유, ISO 9001과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면서 내실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가보테크 관계자는 "남원 신공장은 종이컵에 이어 종이컵 원지와 종이컵 성형기계 등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국내외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설비가 부족한데 따라 이전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남원 송동 공장은 전체부지 1,140평에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합쳐 385평 건물규모를 갖추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보테크는 2004년 중국 청도에 공장을 완공, 최

GABO

고의 품질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국내 및 해외 특허를 가진 '뜨겁고(라면컵 & 테이크아웃컵), 찬(아이스크림컵) 온도 방지 이중주름종이컵'을 개발,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가보테크(주)는 국내, 대만, 리비아 지역에, 금송(주)에서는 일본 수출을 전담, 자판기컵, 테이크아웃컵, 패스트푸드컵, 아이스크림컵, 라면컵 등의 다양한 종이용기와 종이컵 생산에 필요한 기계 설비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다. 특히 까다로운 일본바이어의 호평을 받으며 높은 일본종이컵 시장점유율을 자랑한다.

가보테크 관계자는 "식생활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오랜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연포장재료의 다양화, 고품질화, 고능률적 생산화를 위해 개발된 최신 기종을 통해 전라인의 자동화, 가공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에 공장을 운영할 때 홍수로 인한 부지 침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하는 김성환 대표이사. 그는 항만이 가까운 남원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수출증진 전략을 꾀한 결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 가보테크(주) 검수실

◀ 가보테크(주)가 생산하고 있는 종이컵제품

김성환 대표이사는 "각 부서별 사원들의 창의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가보테크(주)와 금성(주)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2004년 수출의 탑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경영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김성환 대표이사는 지난해 제9회 한국종이용기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당선, 종이컵 업계의 발전을 이끌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일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가보테크(주)는 1회용품 사용억제로 자연친화적 대체품과 재활용이 가능한 순수 천연펄프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

고품질의 종이컵으로 브랜드화 전략을 꾀하고 있는 가보테크는, "좋은 질을 유지하면 시장점유율은 자연히 증가한다"는 김성환 대표이사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매년 꾸준하게 수출 신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가보테크. 영업 관계자는 "모든 바이어가 마찬가지이지만, 처음의 시작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면서 "좋은 품질로 거래를 시작하여 변함없는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의 평판을 높여, 바이어 층을 넓혀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가보테크는 기존 확보된 수출시장을 유지관리하는 한편, 새롭고 참신한 아이템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가보테크 브랜드 이미지 재고에 힘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의 환율하락과, 원지값 상승으로 국내 종이컵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새로운 아이템 개발과 고품질로 국내 종이컵 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길 기대하며, 그 중심에 있는 가보테크(주)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ko

박초혜 기자